

2017 가족주일 설교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3:12-14]

12 때가 오면, 내가 엘리에게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13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 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 주었다.

14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1. 성경에서 보고 싶은 두 부류의 자녀세대들

한 부류는 세례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른 한 부류는 '흠니와 비느하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녀들이다. 공통점은 세례요한이나 흠니와 비느하스 모두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생겨난 것일까? 인정하기 싫지만 먼저는 부모님의 책임이 있다.

2.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기 어려운 시대

(1) 혼돈의 시대와 세계관

악한 시대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 먹는다는 것은 한 마디로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살겠다는 말이다. 세상의 모든 '세계관' 들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세계관'은 기준 자체가 다르다. 모든 일에 대한 다른 기준, 즉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관, 교육관, 성공관 등)

* 혼란에 빠진 아이들

아이들의 때가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의 때에 그 인생을 살게 할 세계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즉,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생각은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방향성이 된다. 아이들 때에는 바로 생각의 '관점'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가정, 사회, 학교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신앙은 '진리'에 대해 마음이 올바르게 정렬된 상태'를 말한다. 즉, 자신이 진리로 옳다고 여기는 바에 대한 '확신의 상태'를 말하는데 바로 '믿음'이다.

아이들의 때에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일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씀에 기록된 '진리'에 대한 확신의 태도는, 이들의 실제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2)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약해지는 신앙교육

신앙을 지니고 있는 믿음의 부모들의 고민은, 혼돈의 시대안에서 어떻게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것은 아마도 세상의 세계관이 얼마나 허무하고, 가변적이고, 진정으로 인간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한 부모님들은 더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느라 치열한 전투를 세상에서 감당한 부모님들은, 세상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댓가 지불을 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3) 자신에게는 엄격한 신앙의 기준이 있지만 자녀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가치의 획득은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다. 굳건한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많은 희생을 감당했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자신의 당대에 신앙을 굳건하게 한 부모세대의 자녀들안에 의외로 많은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세대들이 지불한 희생의 삶 안에 그들도 동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자신에게 적용했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강인한 부모님들을 많이 본다.

3. 엘리제사장의 고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다. 그것이 부르심이다. 사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본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부르심이 가족들과 자녀들과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신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겪는 갈등은 ‘정체성’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사역자 부모님께서 가졌던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례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었지만, 흡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운 부모님 일수록 자신의 부르심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희생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 마음은 가족을 향한 미안한 마음으로 발전한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도 ‘관대한 마음’으로 발전한다. 그것이 과연 내 자녀를 복되게 하는 마음인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1) 엘리 제사장의 시대

[사무엘상 3:1]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사무엘상 3:12-14]

12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13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 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 주었다.

14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ㄱ. 엘리의 잘못 - 엘리 아들들이 잘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13절)

무엇이 문제인가? 엘리 스스로가 인간적인 육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엘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었다면 자신의 아들들의 잘못을 책망했을 것이다. 이들의 인생에 복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의 자녀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키웠을 것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실수와 잘못 정도를 ‘목인’ 한 것이 아니라 ‘죄’를 목인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죄의 개념은 무엇인가? 모르고 지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목인한 것이 죄이다. 그래서 죄악은 악한 것이다.

ㄴ. 엘리의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엘리의 집’의 죄악이라고 말한다. (14절)

‘집’의 의미는 무엇인가? 엘리 당대의 죄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안의 죄악이라는 것은 ‘죄악’이 세례례이션을 통해서 반복된다는 뜻이다. 즉, 죄악의 특성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두어도 ‘멸망’에 이르게 된다.

(2) 세례요한의 가정 - 사가랴와 엘리사벳

[누가복음 1:6]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세례요한의 가정은 정반대이다. 충직한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보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결 같이 성실하고 충실한 자였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세례요한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과, 권위와, 권능은 모든 것의 ‘배’가 되어 증가된다.

(3) 세례요한의 의미 - 배로 증가되는 가문의 영광 (배가 되는 복)

아버지 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더 증가 되었다. 세례요한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 되었겠는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키워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영광이었을 것이다.

(4) 흠니와 비느하스의 의미 - 가문의 패망

대가 흘러 갈수록 그 '집안과 가문' 이 패망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라. 아버지, 나를 넘어 자녀 때까지 그 저주는 지속된다는 것이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1) 세례요한과 같은 부류에 있다면 더 강력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라.

부모님 때에 있었던 모든 것보다 더 확장과 증가를 경험하라. 믿음의 부모님들은 내 당대에 부어주신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내 자녀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2)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는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내야 한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될 것인가? 아버지때 있었던 인간적 타락을 끊어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3) 모든 문제는 '과거' 로 부터 출발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 이며 '미래' 에 대한 일이다.

과거 보다 현재가 중요하다. 오늘 내가 '세례요한' 으로 서서 가문의 영광으로 빛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흠니와 비느하스로 서서 '저주 받은 가문' 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4)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한 세대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세대를 통해서 흐른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이제 우리의 고민은, 당대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다음세대에 더 큰 복으로 임하길 기도해야 한다.

세대간의 단절이 아닌 세대간의 연합과 하나됨의 가문으로 일어나라. 기쁨이 있는 교회는 이 일에 부르심을 입은 교회이다. 이제 굳건한 하나님 나라의 명문가문으로 굳건히 서라.